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전략*

홍성덕**

〈목 차〉

머리말

I. 주요기관 누리집 외국어 구축 내용 분석

II. 온라인 백과사전 내 동학농민혁명 기술 현황

III.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전략

맺음말

〈국문초록〉

세계유산이나 인류무형유산과 달리 세계기록유산은 특성상 유산 자체의 홍보와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도서관 누리집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화 방안을 논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어떻게 관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

* 본 논문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를 바라보다』(2024.9.11~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발표한 PPT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 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계획 수립이 먼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앞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위키피디아와 같은 글로벌 사이트 내 정보구축이다. 도서관 웹사이트 구축과 달리 위키는 정보의 수정이 용이하며, 번역을 통해 다국어 버전이 가능하다. 또한 위키 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보의 오류와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세계화의 내용과 대상, 주제별로 세계화를 위한 정보의 구축, 외국인과 재외한국인, 한국학 연구자에게 정보의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지자체 등의 사업과 연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 위키피디아, 세계화

머리말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록물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는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유네스코의 평가로 국내는 물론 세계 사람들에게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의미한 인류의 기록유산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맞이하였지만, 그것이 곧 국제적인 인식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인류 유산으로 평가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지만 세계기록유산은 특성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나 인류무형문화유산과 달리 등재된 사실만으로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이나 인류무형유산의 경우 등재된 국가들은 문화 관광의 측면에서 해당 유산의 보존 관리에 집중하고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이는 관광산업으로 연결되기에 용이하다. 반면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옛 기록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한된 공간(박물관 등)에서 일부만 공개될 수밖에 없고 해

당 국가의 문자로 작성되어 그 의미를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계기록유산¹⁾을 알리는 작업은 기록의 대상이 된 역사적 사건과 유적 등과 연계하여야 하며, 내용과 의미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화(世界化)’는 상호 교류를 통한 보편적 차이의 공유나 통합을 의미하며, 상호 교류를 위한 기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류는 서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인식 공유’의 과정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공통된 언어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 언어화는 곧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기록유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학문적일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전략의 하나로 주요 온라인 웹사이트 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외국어 소개 현황과 방향에 대한 현황을 검토한 뒤 세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주요기관 누리집 외국어 구축 내용 분석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영문명은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이다. 한자문화권 내의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東學農民革命’을 자국의 한자(东学农民革命, 東學農民革命)로 표기한다. 동학의 경우 초기 ‘Tonghak’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Donghak’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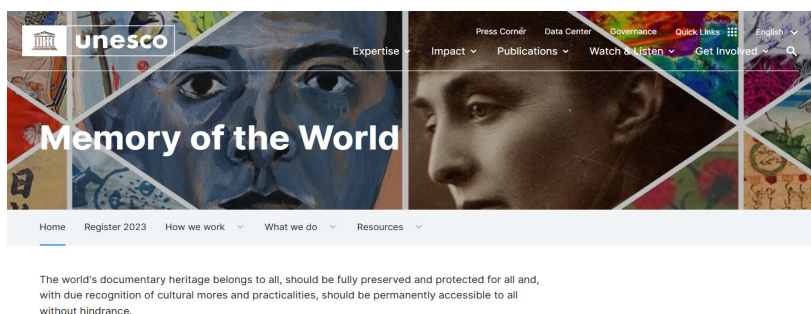
웹 사이트 내 주요기관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외국어 현황과 구글 사이트¹⁾ 내 검색 결과와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

1) 세계에서 사용되는 검색엔진은 20개 이상이다. statcounter.com에 의하면 2024년 2월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검색엔진은 구글(Goole)로 91.47%를 차지하여 압도적이다. 2위는 Bing으로 3.42%이며, 3위 Yandex(1.78%), 4위 Yahoo(1.1%)

브리टे니카(Britannica) 내 소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www.unesco.org)²⁾

유네스코 누리집 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World) 누리집은 기본적으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의 언어로 서비스 중이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기본 소개 영역은 번역되어 있으나, 기록물별 세부 소개 항목은 영어뿐이다. 세계기록유산 메인 구성은 Home, Register 2023, How we work, What we do, Resources로 되어 있으며,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Preserving Documentary Heritage in AIUla, UNESCO/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Our Stories, News, Publications 등이 배너, 게시판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누리집

이중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소개하는 곳은 Register 2023와 Memory

만 1% 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https://www.metacity9.com> 2024. 9. 30. 검색 이하 동일)

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누리집(<https://www.unesco.org/en/memory-world>)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이하 세계기록유산 등재)이다. 세계기록유산등재에서는 국가, 유형, 신청자, 관련위원회, 지역 그룹, 국가 그룹, 날짜 등으로 등재된 기록유산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기록유산등재 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기본 소개와 등재연도, 신청연도, 신청국가, 위치 지도(Collection location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omination form을 원본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기본 소개 항목은 신청서 내 개요 부분으로 이후 국제기록유산센터나 국가유산청에 있는 기록물 소개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The nominated heritage is a collection of 185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The Donghak movement was a popular uprising against both corruption in the ruling class and encroachment on Korea by foreign powers,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more just and equal society. Over the course of the movement, the Donghak army succeeded in establishing a cooperative governing unit known as a jipgangso through which corrupt officials could be punished and unfair government practices rectified. This unit of governance was a novel experiment in democracy with parallels rarely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t the time. The Donghak movement paved the way for Korea to develop into a flourishing democracy. The nominated documents serve as a reservoir of memories testifying to the historical processes through which the public acted as a protagonist in history and impelled the course of events toward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values.

등재를 신청한 유산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185건의 기록물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의 조선 침략에 대항하여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이 봉기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집강소라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설립하는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거버넌스는 당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변영의 길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청일전쟁을 촉발시켰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를 바꾸어 놓았다. 즉,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에 파병된 중국군과 일본군이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중국을 대신해 이 지역의 지배적인 강대국이 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보편적 가치를 달성하고자 전진시켜나가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기억의 저장소이다.³⁾

2. 유네스코 국제유산센터(www.unescoicdh.org)

유네스코 국제유산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 이하 ICDH)는 2020년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에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nominated heritage is a collection of 185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The Donghak movement was a popular uprising against both corruption in the ruling class and encroachment on Korea by foreign powers,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more just and equal society. Over the course of the movement, the Donghak army succeeded in establishing a cooperative governing unit known as a jigangso through which corrupt officials could be punished and unfair government practices rectified. This unit of governance was a novel experiment in democracy with parallels rarely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t the time. The Donghak movement paved the way for Korea to develop into a flourishing democracy. The nominated documents serve as a reservoir of memories testifying to the historical processes through which the public acted as a protagonist in history and impelled the course of events toward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values.

Registration Year: 2023

Submission Year: 2021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

[Nomination form](#)

Collection locations



〈그림 2〉 유네스코 누리집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소재

3)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재 신청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과보고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3.12, 140쪽.

의해 설립된 최초의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이다. ICDH에서는 기록유산 보존 및 보호지원, 정보 허브 구축을 통한 기록유산 접근성 향상, 기록유산의 중요성과 가치에 관한 인식 제고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ICDH는 한국어와 영어로 기록유산을 소개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과 달리 ICDH에서는 기록물 이미지를 여러 장 소개하고 있다. 기록물별 안내는 지역/국가, 소장기관, 등재연도, 관리기관, 외국어표기, 개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요의 내용은 등재 신청서 내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www.heritage.go.kr)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은 국가유산 종합 누리집으로 국가유산 검색, 궁궐·종묘, 조선왕릉, 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유산, 국가유산청 사진관, 국가유산 디지털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중 국가등록문화유산이나 시도 문화유산자료로 등록된 유산은 국가유산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국가유산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유산은 ‘순교약력과 종리원사 부동학사’(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등 3점이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3점은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포함된 것이지만 외국어 소개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국가유산포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서비스 중이다.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 디렉토리에서는 기록유산의 개요와 등재된 기록물 4점(동학농민군 임명장,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순교약력, 전봉준 공초)이 소개되어 있다. 영문 개요는 등재 신청서의 개요이지만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의 경우 내용이 다르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년~1895년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이 봉기한 사건이다. 한국이 변형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발판을 놓았으며, 유사한 외국의 반 제국주의, 민족주의, 근대주의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각 고을 관아에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거버넌스)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国家遺産庁

品サイトマップ

言語

国家遺産庁紹介	国家遺産の紹介	UNESCO 登録遺産
- 庁長の挨拶 - 設立目的・役割 - 文化遺産室長 - 沿革 - アクセス	- 国家遺産の種類 - 朝鮮王宮 - 朝鮮王陵 - 宗廟	- 世界遺産 - 無形文化遺産 - 世界の記憶

無形文化遺産

世界の記憶

東学農民革命記録物(2023)

<写真の出所: 東学農民革命記念財団>

「東学農民革命記録物」とは、1894年～1895年に朝鮮で勃発した東学農民革命に関する記録物である。東学農民革命とは、腐敗した指導層や外国勢力の侵略に抵抗し、平等で公正な社会を築くために民衆が録した事件のことである。

これにより、韓国が策定した民主主義へと進むための土台が整ったほか、外国の類似した反帝国主義、民族主義、近代主義運動に影響を与えた。またその過程で、東学農民軍は、全羅道の各村の官舎(役所)に治安と行政を担当する官民協力(ガバナンス)機構である「執綱所」を設置するといふ統率を新ずている。

東学農民革命記録物は、東学農民軍が作成した文書や政府の報告書、個人の日記や文書、さまざまな任命状などが含まれている。これらの資料により、農民運動の進行過程やその意味を多角的な視点から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特に、時間と場所を超え、人間の権利平等、植民主義に対する反対の考え方などを多様な視点から総合的に示す記録として非常に貴重である。

ユネスコの「世界の記憶」に登録されたことで、「東学農民革命記録物」は、朝鮮の百姓(民衆)が主体となって自由・平等・人権といった普遍的価値を目指した記憶の遺産として、世界的な重要性を認められた。

Materials produced by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No. 1 (Letter written in Hangeul by Han Dal-mun to his mother's back home)

Materials produced by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No. 8 (Letter from the 8th month of 1894 appointing Cheon Bg-won to be a joggang, or local administrative coordinator)

〈그림 3〉 국가유산포털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소개 (일본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는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문서, 정부 보고서, 개인 일기와 문집, 각종 임명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농민운동의 진행과정과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의 권리와 평등,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기록물로서 희귀성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조선 백성

286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3호

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억의 저장소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⁴⁾

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www.1894.or.kr) 및 소장기관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2024년 11월 설립된 뒤, 201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수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기념재단은 기반사업, 기념사업, 연구사업, 기념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한 제출기관으로 등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사료(史料)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1차 사료 208권, 연구논저 5,093권, 증언록 98건, 일지 1,757건을 서비스하고 있다. 기념재단 누리집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별도의 디렉토리 구성은 없으며, 등재 내용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등재신청과 결



〈그림 4〉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누리집

4)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유네스코등재유산<한국의 세계기록유산>동학농민혁명기록물(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Mem_Heritage/MemHeritage_18.jsp&pageNo=5_4_2_0)

과, 등재 목록, 기념학술대회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념재단의 누리집은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본 소개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록물에 대한 외국어 소개 등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총괄하는 특수법인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념재단 이외에 등재된 기록물을 소장한 기관은 10개 기관⁵⁾이다.

〈표 1〉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소장기관

연번	소장기관	건수(건)	비율(%)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66	35.7
2	고려대 도서관	29	15.7
3	국가기록원	5	2.7
4	국립고궁박물관	1	0.5
5	국립중앙도서관	5	2.7
6	국사편찬위원회	5	2.7
7	독립기념관	2	1.1
8	서울대 규장각	58	31.4
9	연세대 학술문화처	3	1.6
10	천도교 중앙총부	9	4.9
11	한국학중앙연구원	2	1.1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누리집에도 별도의 소개는 없으며, 유네스코 등재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을 올려놓은 정도이다.

이상과 같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포함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주요 기관의 기록물 소개는 간단하다. 특히 국가유산청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기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

5)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재 신청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과보고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3.12.

은 수준으로는 세계기록유산의 가치를 알리기에 부족하다.

II. 온라인 백과사전 내 동학농민혁명 기술 현황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구글 내에서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과 “Donghak Peasant Revolution”을 검색하면 위에서 소개한 기관이 가장 먼저 도출되고 있다. 이외에 등재 뉴스와 관련해서 국내 언론의 영문 뉴스, 소장기관의 영문 소식지 등이 검색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경우 한국 홍보사이트인 VISIT KOREA, Korea net 등이 제공된다. 유튜브에서는 KoreaWonder 채널⁶⁾에서 유일하게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2분 32초)이 소개되고 있으나 조회수는 30회에 불과하다. 전 세계 모든 업종 내 상위 방문 사이트인 구글과 유튜브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검색 결과와 내용은 주요 기관 사이트를 제외하면 제공되는 곳이 없다. 전 세계 모든 업종 내 상위 방문 웹사이트 중 2024년 8월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온라인 백과사전 등이 검색되지 않은 것은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표제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

1. 위키피디아 소개 현황

영어 위키피디아에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은 표제어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Memory of the World Program’ 항목 내에 상위 10위 내 한국(5위)이 표시되어 있고, 유네스코 직지상(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이 소개되어 있다.⁷⁾

6) 유튜브, 코리아원더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fcyTKwEF3To> &t=40s)

한국 위키피디아(위키백과) 역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항목은 없으며, 세계기록유산 항목 내 대한민국의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등재된 18건의 한국 세계기록유산 중 등재된 유산 목록이 항목으로 작성된 것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동의보감, 일성록, 난중일기,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의 유교책판 등 8건이다.⁸⁾ 이중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역사적 사건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유산에 대한 소개는 없다. 이를 제외하면 한국 위키백과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소개된 기록은 7건이다. 이들 7건은 모두 단일 기록물로 등재된 것이다. 2023년에 등재된 4·19혁명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경우 소장기관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들 두 기록물은 4·19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은 표제어로 정리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Donghak Peasant Revolution)은 위키피디아 내 22개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 이중 한국어, 영어, 일본어 항목 구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외국어(영어, 일어) 위키피디아 동학농민혁명 목차 비교

한국 위키백과	영어 위키피디아	일본어 위키피디아
배경	Background	第一次蜂起
개요	Gyojo Shinwon movement	日清戦争
고부 봉기 배경	Gobu Revolt	第二次蜂起
동학의 분열	First revolt	戦後
동학 농민군의 파벌	Summer of 1894	戦後サブセクションを切り替えます
구호와 거사 목적	Second revolt	世界の記憶
봉기 직전	Battles outside the main front	脚注

7) 영문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Memory_of_the_World_Programme

8)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세계기록유산'

한국 위키백과	영어 위키피디아	일본어 위키피디아
결과와 전개 과정	Fall	参考文献
주요 전투	Legacy	関連項目
조선군의 전쟁 범죄	Controversies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승려	In popular culture	
진압 이후	Further reading	
기타 활동	See also	
평가		
관련 인물		
실패 원인		
《전봉준공초》		

영어의 경우 동학농민혁명의 명칭에 각주로 “Also known as the Donghak Peasant Movement”(동학농민운동; 東學農民運動; donghak nongmin undong), the “Donghak Rebellion”, the “Peasant Revolt of 1894”, and the “Gabo Peasant Revolution”라 하여 동학농민운동, 동학혁명, 1894년 농민반란, 고부농민혁명 등의 용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일본어는 항목 명칭이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戦争)’이며, 도입 설명에 한국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나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부른다고 부기하였다. 일본어 위키피디아에서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하였다. 스페인어의 목차 구성은 배경(동학, 국제상황), 반란(1차, 2차)이며, 프랑스는 기원(동학의 탄생, 국제 상황), 반란(1차, 2차, 결과), 기념 장소로 스페인과 달리 기념장소로 전봉준 고택, 만석보 기념비, 황토현 전투 기념비, 농민반란 100주년 기념비, 우금치 전투 기념비 등을 표기하였다. 중국어는 배경, 경과(1차 봉기, 2차 봉기, 결과), 기념 등이다.

22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내용은 언어별로 항목 구성과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술된 내용 중에는 백산을 백두산으로 표기하고 링크를 연결해 놓은 오류도 보이며 영어 위키에서는 논란(Controversies) 항목에서 동학과의 관계, 흥선대원군과의 관

계 이외에 일본 겐요사(玄洋社)와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어 비록 한국 역사에 의해 강력하게 반박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 사이비 역사로 간주된다고 하면서도 허구적인 내용을 세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⁹⁾

한편,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연결된 항목 중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항목은 Donghak, Jeon Bong-jun, Kim Gae-nam, Choe Je-u, Gobu revolt, Battle of Ugeumchi, First Sino-Japanese War, 19th-century peasant rebellions in Koream, Battle of Hwangtojaem Battle of Hwangryong River, Siege of Jeonju Fortress, Retreat from Gongju, Battle of Pungdo 등이다.

2. 브리테니커 온라인 백과사전

Britannica 백과사전(Encyclopædia Britannica)은 가장 오래된 영어 백과사전으로 2012년 종이책 출판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¹⁰⁾ 브리테니커에서도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표제어는 없으며 동학농민혁명은 ‘Donghak Uprising’ 항목으로 소개되어 있다.

Donghak Uprising, (1894) Korean mass revolt that sparked the first Sino-Japanese War (1894-95). Despite being persecuted for it, impoverished Koreans turned increasingly to Donghak (“Eastern Learning”; see Cheondogyo), a syncretic, nationalistic religion that opposed Western culture and espoused equality of all people. When demonstrations staged by Donghak

9) 영어 위키피디아 「Donghak Peasant Movement」 “Jeon gathered an army in Mount **Paektu** and recaptured Gobu in April.”

10) 『인터넷으로 죽었다... 인터넷으로 부활』, 『조선일보』, 2013.4.27(https://wee.kly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26/20130_42601286.html)

followers calling for social reform met with a negative government response, the masses united with them in a rebellion that succeeded in defeating government troops in southern Korea. The government called on China for aid; Japan sent in troops without being asked, and China and Japan clashed. The rebels laid down their arms to defuse tensions; nevertheless, the Sino-Japanese War ensued. The leaders of the uprising, including Choe Si-hyeong, were executed.

브리테니커는 동학농민혁명을 ‘동학 봉기(Donghak Uprising)’로 표기하고 있으며, 내용 역시 매우 소략하다. 동학농민혁명을 제1차 청일전쟁을 촉발한 한국의 반란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학(천도교)과의 관계만을 서술하고, 지도자로 최시형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동학’의 연계성으로 축소했을 뿐 아니라 1차 봉기와 2차 봉기가 가지는 평가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브리테니커 내 동학 관련 항목과 연결된다. 동학농민혁명에 연결된 항목은 천도교(Cheondogyo)와 제1차 청일전쟁, 최시형뿐이다. 천도교 항목에서는 최제우와 손병희가 최시형과 함께 링크되어 있다. 즉 브리테니커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과 김개남조차도 표제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도 Korea 표제어 내에 ‘동학봉기와 정부개혁(The Donghak Uprising and government reform)’ 내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다루고 있다.

Despite ruthless government persecution, Cheondogyo took deep root in the rural populace. Its followers staged large-scale demonstrations calling for an end to injustice. A negative official response precipitated the Donghak Uprising (1894), in

which the Cheondogyo followers and the rural communities formed a united front to demand reform.

역시 동학농민혁명을 천도교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천도교 신자와 농촌 공동체의 연합 전선을 구축 개혁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민군이 무기를 내려 놓았다.(The rebels laid down their arms voluntarily to defuse the threat)”고만 기술하여 전주화약이 가지는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아울러 2차 봉기가 가지는 의미와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전략

세계화는 각기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쳐온 국가의 문화나 삶의 방식을 획일화하거나 보편화, 동질화하는 경향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혼용화의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¹⁾ 동질화나 혼용화의 세계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호 소통의 방법이다. 어떠한 언어와 말로 세계화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세계화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국력과 분리될 수 없다. 세계화 과정에서의 국력은 단순히 인구나 경제력,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과 같이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발전은 문화 영역에서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을 해외에 홍보하고 관심있는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차원인 드라마 중심의 한류 1세대가 게임, 드라마 중심의 2세대를 거쳐 K=POP과 영화가 주도하는 한류 3세대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한국 학습으

11) 김형민, 2011,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방안」, 『독일언어문학』 54, 263쪽.

로 전환되었다. 한국에 대한 학습은 한국어와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문화 붐이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ARMY(아미, BTS팬클럽)와 같이 세계 문제에 대한 실천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¹²⁾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22년 132억 4천 만 달러로 가전 제품 수출액 80억 6천 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0조 4천 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문화 역량은 해외 한류실태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 66.1%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며 57.9%는 한국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문화콘텐츠 소비가 영향을 미쳤다고 답하였다.¹³⁾

이와같이 한국의 문화 역량 강화는 한국문화, 한국학의 세계화에 좋은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의 세계화는 국가 경쟁력, 문화요소,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요소가 필요하다.¹⁴⁾ 국가 경쟁력은 한국의 세계적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 역량이 다른 제반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문화요소는 세계화의 내용으로 무엇을 세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한국어와 문화를 비롯하여 정책, 산업제품 등이다. 인구 요소는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세계화는 일방적 전달 수단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국가·민족 정체성과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세계문화의 일원으로 한국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의 예의범절과 세계화 과정의 저해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국제 문화교류를

12) 「BTS와 아미는 세상을 어떻게 바꿨나」, 『시사저널』 1825호, 20024.10.5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570>) 아미는 정치, 환경, 차별의 문제에 ‘SPEAK MYSELF’를 실천하고 있다.

13) 『2023 한류백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3, 329쪽

14) 전성운, 2010, 「한국학의 개념과 세계화의 방안」, 『한국학연구』 32, 333쪽.

전담하는 기구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또한 중요하다.¹⁵⁾

세계화 전략은 첫째, 세계화의 내용, 둘째, 세계화의 대상, 셋째, 세계화의 주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세계화의 내용은 무엇을 세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와 세계 보편적 가치의 세계화이다. 세계화의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세계화할 것인가로 한국인을 포함한 세계인이 대상이다. 각기 다른 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대상에 따른 다양성이 필요하다. 세계화의 주체는 구체적으로 누가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행 주체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1. 세계화 내용에 따른 전략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가지는 세계적 가치에 대한 홍보 전략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 한국세계기록유산 설명자료(on-off) 제작(다언어)과 국제적 웹 정보 확충 및 활용 강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국제 네트워크 협력 강화 등 세 부문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 한국세계기록유산 설명자료 제작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홍보자료가 부족하다. 이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18건의 세계기록유산 모두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 세계기록유산 누리집 제작 또는 확대: 18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모두 소개하고 있는 곳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포털이다. 단순한 개요와 사진 제공을 벗어나 각 기록물별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가 설명하여 외국인들이 기록물의 가치를

15) 김형민, 위의 논문, 268~270쪽.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학술자료의 인식 확대를 위한 대중화 작업: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이다. 기록유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록 소장 국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화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기록물 자체의 학문적 의미 보다는 기록물이 가지는 보편적 세계사적 가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선정기준에 의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가치는 민관협력에 기반한 전례 없는 형태의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조선 정부의 근대적 개혁을 이끌어 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¹⁶⁾ 이는 민주주의와 근대화, 평등, 인권 등의 가치이다.

둘째, 국제적 웹 정보 확충 및 활용 강화이다. 인터넷 검색은 이제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해서 이용하는 필수 도구이다. 검색 결과 값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정보가 노출되는가에 따라 정보의 확산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검색 결과는 매우 미미하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위키피디아와 브리टे니커 내의 관련 항목을 검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위키피디아 내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항목을 만들고, 동학농민혁명 관련 항목의 내용 유무와 정합성, 카테고리 구성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위키피디아 작업에는 한국어 기술 내용을 포함해야만 한다. 외국어의 경우 오류 수정 및 내용을 보완한다. 언어별 위키피디아 내용의 동질성 확보하도록 한다.

아울러 텍스트 기반의 웹 사이트 구축 이외에 동영상 콘텐츠를 구축한다. 유튜브 내에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영상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구축한다.

16)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재 신청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과보고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3.12, 147~149쪽.

셋째, 동학농민혁명 국제 네트워크 협력 강화이다. 학문적 특성이 강한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세계사적 가치 공유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연구 확산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의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전문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학술회의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외 연구 확산과 보편적 가치, 국제 비교 등을 중심으로 운용한다. 다음으로 근현대민주주의 관련 혁명 주도 도시(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편적 세계사적 가치의 공유와 공감을 구축해 나간다.

2. 세계화 대상에 따른 전략

세계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국외 한국 연구자 및 학생, 재외 한국인 및 친한국 외국인, 한국학 관련 박물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증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대한 연구자, 학습자나 홍보의 주체(기관)를 대상으로 세계화 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 외국인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이다.

첫째, 국외 한국 연구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다. 현재 국외 대학 한국학 현황을 보면 2023년 107개국 1,408개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 개설하고 있다. 이 중 551개 대학이 한국학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857개 대학에서 한국학 교양어학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¹⁷⁾ 교양교육의 경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대중적 도서를 제작 배포하며, 한국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중에서 한국근현대사 강의를 위해 국외대학 한국학(역사) 교수를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연구교육자료를 제공한다. 한국학과 개설 대학 학과와 한국학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551개 대학 도서관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도서를 보급한다.

둘째, 재외 한국인 및 친한국 외국인 대상이다. 재외 한국인을 위해

17) 『2023 한국국제교류재단연차보고서』, 한국국제교류재단, 2024.

지난 2023년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다음으로 친한국 외국인을 위해 한국 소개 웹사이트 정보를 구축, 제공한다. 한국 홍보 사이트로 Koreanet, Study Korean, Visit Korea, 재외교육기관포털(OKEP) 등이 있다. 이들 누리집에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을 알리는 카테고리를 구축한다. 끝으로 지자체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관내 거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외동포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해당 프로그램에 기록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협력한다.

셋째, 한국학 관련 박물관 등 기관 협력이다.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 및 세종학당에 자료를 보급한다. 현재 한국문화원은 30개국에서 35개 문화원이 운영 중이며, 세종학당은 85개국에 248개소가 있다¹⁸⁾. 또한 해외 박물관 내 한국관 운영 박물관 전시를 지원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국외 박물관 한국실지원사업’으로 2024년 9개국 21개관을 지원하고 있다.¹⁹⁾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물을 포함 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해외특별전을 개최하거나 주요 기록물의 복본을 제작 한국관에서 상설 전시될 수 있도록 한다.

3. 세계화 주체에 따른 전략

1)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

18) 한국문화원(kccuk.org.uk) 「전 세계 한국문화원 현황」; 국제문화홍보정책실(www.kocis.go.kr) 「재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재단(www.ksif.or.kr) 「세계 곳곳 세종학당」.

19) 「국립중앙박물관, 24년부터 국외박물관 한국실 9개국 21개관 지원」 2023.10.12.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진 계획(2024-2027)”을 발표²⁰⁾하였다.



〈그림 5〉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전략

이 계획은 국민과 세계가 함께 공감하는 콘셉트로 대한민국을 알리고, 위키피디아, 관광 웹사이트 등에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외신·세계적인 인플루언서 등을 대한민국 홍보의 '든든한 우군'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위키피디아 등 주요 웹사이트 내 한국 정보 유통 현황

20)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 계획(2024-2027)」, 문화체육관광부, 2024.

을 조사하여 누락 정보를 확인하고 접근 경로별로 다각적으로 정보를 제공 관리하며, 소셜미디어의 한국홍보를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홍보를 독려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홍보 추진 계획은 한국 홍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중심과제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웹사이트의 점검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중점 추진 부처는 국가유산청이다. 국가유산청에서는 한국의 등재 목록을 사전에 점검 선정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따라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등재와 활용에 관한 총괄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내 유네스코 등재유산으로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이 구축되어 있다. 각 유산별 신청절차, 개괄적인 내용과 유산별 소개가 제공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세계기록유산이란?'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등 2개 항목(외국어의 경우 한국세계기록유산만 소개) 각 기록유산 내 기록 개요와 4종의 기록물을 소개하고 있다. 기록유산별 소개는 신청서 내 개요 부분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등재신청서 전문을 제공하는 반면 한국 내에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다. 따라서 국가유산포털 내 유네스코 등재 유산에 대한 내용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소장 기관별 사이트에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국가유산포털에서는 개요, 세계사적 가치, 소장기관, 열람 방법 등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내용을 확충한다.

또한 세계기록유산별 도록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중 기록물 전체를 이미지와 번역문(한글)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지

만 외국어로 서비스되는 곳은 없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에서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영문 도록을 제작하여 보급(기록성격, 수량 등을 고려 통합 제작)한다. 도록은 E-Book으로 국가유산포털에 탑재하고, 아울러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 세계기록유산을 복본²¹⁾으로 제작하여 해외 박물관 등에 제공하여 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세계기록유산 신청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관리 및 활용 위원회'와 같은 기관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기관협의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관리와 국내외 확산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소장기관의 관리 실태와 외국어 소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교육 및 연구 추진 계획, 홍보 등 대중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전국화, 세계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DB를 구축한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사이트를 단계별로 구축 구축하며, 주요 동학농민혁명기록 외국어 번역 추진한다. 기록물 전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외국에 소개할 대표적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무장포고문, 폐정개혁안, 전봉준공초, 사발통문 등)을 선별하여 외국어로 번역한다. 나아가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소개하는 대중서

21) 복본은 전시를 위해 일부만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 전체를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기록유산 중 기록물 전체가 복본으로 제작된 것은 『조선왕조실록』뿐이다(홍성덕, 「조선왕조실록의 보존과 수호」, 『전라도천년사 19, 조선 후기 4 조선시대 전라도의 문학과 출판문화』, 전라도천년사편찬위원회, 2022.12.30. 285쪽).

를 제작(외국어)하고 위키피디아 항목 구축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현재 사료아카이브를 구축 운영 중에 있다. 사료 아카이브 내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카테고리를 만들고 185건의 기록물에 대한 DB를 구축한다. DB구축은 한국어의 경우 역사적 전문성을 포함해야 하고, 외국어 내용은 한국어 설명의 번역이 아닌 외국인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별도로 기술한다.

한편 기록물 이외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외국어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역과 설치된 기념물(기념비, 사당 등)등에 대한 현황 소개도 필요하며, 기 조사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학, 예술작품과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설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세계화는 인식 확대와 가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단계별 절차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식 확대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가 수반될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 즉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정보 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정보의 소개 이외에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소개는 유네스코(영어, 프랑스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영어), 국가유산청(영어, 중국어, 일어)에 불과하다. 구글 내 ‘Archives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의 검색 결과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외 한국 관련 홍보 사이트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뉴스 기사만 도출된다. 동학농민혁명은 위키에서 22개 언어로 소개되고 있으나 언어별로 내용의 편차가 크고, 오류와 왜곡, 내용의

편향된 사례도 있다. 브리टे니커 백과사전에서는 ‘Donghak Uprising’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으며, 서술 내용이 천도교 중심이며, 청일전쟁의 발발 요인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외국어로 제작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관련 자료와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에 관한 학술 정보들에 대한 현황(JSTOR, Google Scholar 등) 및 연구동향 등을 분석하고 전문 학술 정보의 세계화 전략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동학농민혁명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야 하며, 다음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가지는 세계사적 보편성을 공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화 추진은 먼저 국내에 알리는 일을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가 없기 때문이다. 홍보책자, 도록 제작이나 DB구축 등이 온-오프 라인에서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세계화 전략으로 세계화 내용(무엇을 세계화 할 것인가), 대상(누구를 대상으로 세계화를 추진할 것인가), 주체(누가 실행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였다.

투고일 : 2024. 10. 7.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2024. 11. 15.

참고문헌

〈단행본〉

『2023 한국국제교류재단연차보고서』 한국국제교류재단, 2024.

『2023 한류백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논문〉

김형민, 2011,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방안」, 『독일언어문학』 54, 독일언어문학연구회, 259~275쪽.

전성운, 2010, 「한국학의 개념과 세계화의 방안」, 『한국학연구』 3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17~337쪽.

홍성덕, 2022, 「조선왕조실록의 보존과 수호」, 『조선시대 전라도의 문학과 출판문화』 전라도천년사19, 조선후기4, 전라도천년사편찬위원회.

〈기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국제문화홍보정책실(<https://www.kocis.go.kr>)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https://www.1894.or.kr>)

세종학당재단(<https://www.ksif.or.kr>)

영문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

유네스코 국제유산센터(www.unescoicdh.org)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누리집(<https://www.unesco.org>)

코리아원도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fcyTKwEF3To> &t=40s)

일본 위키피디아(<https://jp.wikipedia.org>)

한국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한국문화원(<https://kccuk.org.uk>)

「BTS와 아미는 세상을 어떻게 바꿨나」 『시사저널』 1825호, 20024.10.5.

「국립중앙박물관, 24년부터 국외박물관 한국실 9개국 21개관 지원」 2023.10.12.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인터넷으로 죽었다… 인터넷으로 부활」, 『조선일보』, 2013.4.27.

〈Abstract〉

Strategies for Globalizing of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ong, Seongduk*

Unlike World Heritage Sites 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orld Documentary Heritage is inherently limited in terms of promoting and utilizing the heritage itself. Documentary Heritage is an independent programme from the World Heritage, which is not managed or utilized under the UNESCO 1972 Convention.

In the absence of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sources, such as books or websites introduc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cumentary Heritage, discussing globalization strategies may be somewhat prema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concretize a comprehensive plan on how to manage and utilize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cumentary Heritage as a World Heritage Site. Before advancing the development of this comprehensive plan, an initial step could involve building information on global platforms like Wikipedia. Unlike traditional books or websites, wikis allow for easy modification of information and can offer multilingual versions through translation.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correct any errors and distortions regard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ithin the wiki.

There should be efforts to build information for globalization based

* Jeonju University, Professor

on its content, target, and stakeholders, and to provide information to foreigners, overseas Koreans, and Korean Studies researchers. Collaboration with initiatives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also be sought.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Key word : Memory of World,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Wikipedia, Globalization

